

형식과 목적:
칸트와 카시러를 중심으로
Form and End:
Focusing on Kant and Cassirer

추정희 / 홍익대학교 박사
Jung-Hee Chu / Ph.D at Hongik University

- I. 서론
- II. 목적개념과 형식개념에 대한 고대 철학적 이해
- III. 칸트의 형식개념과 목적개념
- IV. 칸트의 영향에 따른 괴테의 목적개념과 형식개념
- V. 카시러의 문화철학에서 목적개념과 형식개념
- VI. 결론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을 중심으로 칸트의 사상과 카시러의 문화철학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카시러의 문화철학적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시러는 칸트주의자로서, 상징과 문화, 인간성에 대한 독자적인 철학을 창시했다.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이 문화 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볼 때, 이 개념들은 칸트사상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확장될 수 있는 매개적인 지점이자 계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단력비판』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칸트의 “합목적적인 형식” 개념이 카시러의 문화철학적 개념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개념들의 의미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카시러에게서 형식 개념은 “전체성”과 “구조”에서 이해되며, 이념이자 상징으로서, 전체성으로서 나타난다. 또 그것은 자유의 성취라는 문화의 목적과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점에서 본 연구는 자유의 성취는 하나의 이념처럼 무한히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연구에서 발견적 원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칸트와 카시러의 사상적 매개자로서 괴테의 사상과 예술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카시러의 문화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의 구체적 형성에 미친 영향들도 함께 논할 것이다.

핵심어 | 구조, 목적, 문화, 발견적 원리, 자유, 전체성, 형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early clarify the meaning and methodology of Cassirer's cultural philosophy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ant's philosophy and Cassirer's cultural philosophy, focusing on the concept of form and the concept of end.

As a Kantian, Cassirer created his own philosophy on symbols, culture and humanity. Considering the positions occupied by the concept of form and the concept of end in cultural philosophy, these concepts are mediating points and opportunities to enter Kant's thought and to expand it. For example, Kant's concept of "final form" can be transformed into Cassirer's cultural philosophical concept. For Cassirer, the concept of form is understood as "totality" and "structure." It appears a whole-bild or a total-bild as an idea and symbol. For him, this concept is inseparable from the concept of the end of culture. It means the achievement of freedom as a result or direction to be pursued infinitely and has the function of a heurist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culture. In order to presen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concepts of Kant and Cassirer, this study examines Goethe's theory of archetypal form and metamorphosis as examples.

Keywords | Culture, End, Form, Freedom, Heuristic principle, Structure, Total-bild

I. 서론

본 연구는 문화철학이 문화형식을 중심으로 구조와 방향, 그 전개를 인식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일정한 구조로서 문화형식과 자율의 성취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으로써,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을 중심으로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의 문화철학을 파악해보고자 하며, 그것과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사상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카시러는 신칸트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상징과 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철학을 창시했다. 카시러는 칸트의 주저서들을 편집했을 정도로, 칸트 사상에 밝았다. 따라서 카시러의 문화철학은 칸트의 사상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카시러가 칸트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자료들은 카시러의 연구들 중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철학은 그의 후기 연구에 속한다. 대체로 칸트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식의 문제 II』(1907), 『자유와 형식』(1916), 『칸트의 삶과 이론』(1921)은 그를 문화철학자로 알려지게 한 주저인 『상징형식의 철학』(1923-1929)이 나오기 전에 출간된 것이다. 칸트사상에 대한 카시러의 연구들과 그의 문화철학 연구들은 그 점점만을 간간히 찾을 수 있을 뿐, 서로의 관련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발견하기 힘들다.

그런 이유에서 카시러의 문화철학과 칸트사상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을 쉽게 발견하게 어렵다. 더구나 기존의 칸트와 문화철학을 연관하는 연구들은 목적개념에만 치중하고 대체로 형식개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연구들이 진정한 문화철학적 이해로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다.¹ 문화철학은 인간학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목적을 부여할 줄 아는 존재라는 점에

1.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박일호의 「신 칸트 철학과 E. 카시러의 문화철학」 『미학』 60권 (2009)과 신응철의 「독일관념론의 전통에서 본 카시러의 문화철학」 『인문학연구』 42집 (2012)를 제외하면 칸트 사상과 카시러의 문화철학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은 극히 적다. 다만 차선적으로 칸트 사상 속에서 문화개념의 의미를 논하는 논문들에 주목해볼 수 있다. 즉 김광명의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의 문화의 의미와 실천철학적 함의」 『칸트연구』 11집 (2003), 김석수의 「칸트 문화개념의 현대적 의미」 『칸트연구』 11집 (2003), 박필배의 「칸트 비판철학에서 문화개념」 『철학』 72집 (2003)은 『판단력비판』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자연의 목적으로서 문화의 개념을 논하고 이 개념을 통해서 도덕철학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칸트의 『판단력비판』을 중심으로 미감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의 비판을 심도 있게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하선규의 「의미 있는 형식(구조)의 상호주관적 지평: 반성적 판단력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시론(試論) I」 『칸트연구』 14집 (2004)은 형식개념을 구조개념과 연관하고 반성적 판단력이 의미 있는 형식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김철의 「칸트의 『판단력비판』에서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관정의 확장 논변 재구성」 『철학사상』 43호 (2012), (DOI: 10.15750/chss.43.201202.005)은 자연의 내적 형식의 합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논하고, 목적개념을 궁극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차승한의 「칸트의 목적론에서 '자연의 최종목적'으로서의 문화: 「목적론적 판단력비판」 § 83-84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교육』 66호 (2020), (DOI: 10.18338/kojmee.2020.66.251)는 판단력비판의 목적개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그것을 문화개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논문들은 칸트 사상에 한정된 것

서 문화철학은 출발한다. 그 점에서 문화철학에서 목적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코 형식개념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이 문화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볼 때, 이 개념들은 칸트사상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확장될 수 있는 매개적인 지점이자 계기이다. 칸트의 문화개념을 논하면서 형식개념은 제쳐두고 자연목적으로서 문화만을 논하는 것은 불충분한 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칸트사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두 개념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카시러의 문화철학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칸트의 형식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형식개념 가운데 목적개념을 결합시키고자 하며, 칸트와 카시러의 매개자로서 괴테를 통해 정신의 근본형식의 구체적 실현을 제시함으로써, 카시러의 문화개념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의 중심을 카시러의 저서 『칸트의 삶과 이론』에서 판단력비판에 대한 연구와 『문화과학의 논리』에 두고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II. 목적개념과 형식개념에 대한 고대 철학적 이해

카시러는 형식개념과 원인개념이 세계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두 축이라고 보았다.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의 존재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묻고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신화와 철학에서 파악하고자 한 존재문제와 생성문제이다. 카시러는 이 문제들이 “존재구조적 사유인 형식사유와 생성원인적 사유인 원인사유”(LK, 446)²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형식사유와 원인사유는 그의 문화철학적 방법론과 관련이 있고, 또 이러한 사유들이 목적개념과 결합되어 있기에, 카시러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카시러는 플라톤의 철학이 처음으로 철학적인 고찰을 생성, 원인의 문제에서 단순한 존재구조적 사유인 형식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LK, 446). 형식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카시러는 소논문에서, 에이도스와 에이돌론, 즉 형식과 이미지가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데인(idein)에서 파생된 개념쌍이라고 보고 이 개념쌍이 플라톤 세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 일례로 새로운 도구를 제작하는 자는 보는 행위를 통해, 도구

일지라도, 형식개념 혹은 목적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고 있어서, 문화철학적 구성에서 형식과 목적개념의 의미를 논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긍정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다.

2. Ernst Cassirer,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Fünf Studien*,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24, hg. v.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이하 LK로 약칭한다.

3. Ernst Cassirer, “Eidos und Eidolon, Das Problem des Schönen und der Kunst in Platons Dialogen” (1924), in

의 형식과 규정, 즉 에이도스와 목적을 주목함으로써 도구를 감각적인 형태로 구현해낸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도구의 원인에 주목하기보다는 도구의 구조, 도구의 형식에 주목한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방직바대를 제작한 자나 오늘날 새로운 방직바대를 제작하려는 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근원형식을 바라보는 시선”이다.⁴ 근원형식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제작자에게 제작의 방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목적개념을 품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형식개념은 원인개념이 결부된 형식-원인, 즉 형상인(Form-Ursache)으로, 존재보다는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료인으로는 생성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는 부분들의 기계적인 합에서 나올 수 없다. 특히 유기체의 경우 부분들에 앞서서 전체가 있다. “진정한 전체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목적에 지배되고 이 목적을 실현하려고 애쓸 때에만 나타난다”(LK, 447)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개념은 질료 속에 내재하는 “목적활동적인 능력 전체”(KLL, 296)⁵를 의미한다. 그의 체계 내에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전개(Entwicklung)는 유기적 운동으로, 특수가 보편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목적개념은 “보편적인 것이자 전형적인 것”으로, “생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LL, 295). 카시러는 이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개념과 원인개념이 결국에는 목적개념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KLL, 296).

이제 또 다시 목적개념보다는 형식개념에 중점을 두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플로티누스의 철학과 신플라톤주의 사상이다. 여기에서는 형식개념과 현상세계의 관계가 유기체의 형식과 미의 형식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결합으로 나타난 신플라톤주의 체계 속에서, 전개는 유기체의 이념과 미의 이념의 유출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지적인 근원으로부터 감각적인 세계로의 하강은 현상세계와 순수한 형식세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유기체의 이념과 미의 이념이 형식의 문제에 뿌리내리고 있다(KLL, 297). 우리는 자연을 고찰할 때, 현상들에서 전체 형식, 즉 순수한 형식을 바라본다. 미적 직관은 미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생명의 가능성도 파악한다. 이러한 직관에서 형상화의 근본 작용이 이해된다. 형상화하는 이성이 유(類)적인 특징적 구조를 새롭게 발생하는 개체에 부여는 것처럼, 예술가의 창조적 과정도 동일하게 이해된다.⁶ 즉 예술가가 품고 있던 정신적 원상은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6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3), p. 60.

4. Ernst Cassirer, “Form und Technik” (1930),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7–1932),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7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4), p. 144.

5. Ernst Cassirer, *Kants Leben und Lehre* (Berlin: B. Cassirer 1921). 이하 KLL로 약칭한다.

6. Plotinus, *The Enneads*, trans. Stephen Mackenna (New York: Pantheon Books 1969), V, 8.

소재를 제어하고, 그것을 형식의 통일성을 반영하는 상으로 만든다. 이러한 형식개념은 피렌체 아카데미의 사상과 거기에서 자라난 샤프츠베리와 빙켈만에 이르는 사변적 미학을 통해 “내적 형식”(KLL, 297)개념으로 발전했고, 칸트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이 개념들에 대한 카시러의 이해는 그의 문화철학에서의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의 단초들을 형성한다.

Ⅲ. 칸트의 형식개념과 목적개념

카시러의 문화철학에 미친 칸트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칸트의 형식과 목적개념을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한 카시러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카시러의 문화철학에서 그 개념들의 가능과 한계, 그 기능과 방향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짐작케 한다.

우선, 칸트의 목적개념은 『판단력비판』의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의 목적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종인(final cause)의 형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 중 작용인과 목적인을 활용하여⁷ “작용인적 결합(nexus effectivus)”과 “목적인적 결합(nexus finalis)”으로 구분한다(KU, §61).⁸ 칸트에 있어서 작용인적 결합은 부분과 부분의 결합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연의 형식을 기계적인 인과성에 따라 기계적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목적인적 결합은 전체로부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결합방식으로 최종원인이라는 관념적 원인의 결합이다. 칸트에 따르면 작용인적 결합만으로는 자연을 단순히 기계적인 조직으로 보게 되고 자연과 그 형식을 우연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연을 체계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목적인적 결합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작용인적 결합과 목적인적 결합의 조화는 칸트의 자연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목적개념이 칸트에게서 그의 “사유방식의 혁명”에 상응하는 변화를 겪는다는 점이다(KLL, 357). 카시러에 따르면, 칸트의 목적개념은 실체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KLL, 367). 즉 칸트의 경우, 목적을 실체, 즉 사물 안이나 사물들의 배후에 객관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의 힘으로 보지 않고,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가 현상의 전체를 판단케 하는 정신적 결합원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칸트에게 있어서 자연을 인식할 때, 목적개념이 인과개념과 모순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목적개념이 인과개념에 따른 자

7. Aristoteles, *Physics*, trans. Robin Waterfie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Book II, 194b.

8.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hg. v. Karl Vorländer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74). 이하 KU로 약칭한다.

연 인식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적개념은 “자연의 기계적 인과성의 원리를 해치는 일이 없이, 자연학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KU, §61)로 기능한다. 목적개념이 자연의 전체와 그것으로부터 특별한 개별부분들의 결합관계를 제시함에 따라, 특별한 개별부분들은 서로의 형식을 제시한다. 이처럼 목적에 따른 자연의 결합과 자연의 형식 개념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상은, “자연의 한갓된 기계적 조직에 따르는 인과성의 법칙들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경우에, 자연의 현상들을 규칙 아래 종합하기 위한 적어도 또 하나의 원리인 것이다” (KU, §61). 이 점에서 카시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목적원리는 구성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고 규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목적 원리는 현상들의 인과적 해석의 극복에 기여하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인과적 해석을 더욱 심화하고 모든 측면에서 이용한다. 목적원리는 이러한 인과적 해석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과적 해석을 준비한다” (KLL, 366).

칸트의 목적개념을 실체보다는 기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칸트가 자연을 목적에 따르는 인과성에 의하여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목적에 따르는 인과성의 “유비”에 의하여 관찰과 탐구의 원리들 아래로 끌어넣으라고 한 것에 있다 (KU, §61). 이러한 유비는 자연목적에 대한 우리의 오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칸트는 “목적론적 판단력의 변증론”에서 논증적 오성인 우리의 오성과 직관적 오성인 원형적 지성이 자연을 파악하는 방식을 비교한다.⁹ 부분의 형식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논증적 오성은 자연전체, 세계전체를 인식할 수 없다. 반면에 원형적 지성은 자연을 전체로서 체계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에 전체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위한 전체라는 표상으로서 상정되는 것이다. 그 경우에도 “전체의 표상이 이 전체의 형식을 가능케 하는 근거와 전체에 필요한 부분들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KU, §77). 즉 전체의 표상, 전체의 이념은 실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향하는 방향이 될 뿐이다. 칸트는 자연연구에서 인과원리와 목적원리를 화해시킬 뿐, 더는 절대적인 근거로서, 물자체로서의 자연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사상 속에서 자연 전체는 이념으로서, 다만 특수한 자연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만 기능한다. 이처럼 목적론과 기계적 조직의 원리 사이에서 일어난 비판적 화해로 인해, 목적개념

9. 칸트는 우리의 오성과 신적 오성을 나누고, 우리의 오성을 “논증적 오성”, 혹은 “모형적 지성(intellectus ectypus)”이라고 불렀던 반면에, 신적 오성은 근원적 지성, “원형적 지성(intellectus archetypus)”이라고 불렀다 (KU, § 77). 원형적 지성은 자연을 우연한 것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성을 고려하여, 자연을 체계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판정하고자 반성적 판단력에 의해 요청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원형적 지성이라는 이념이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 자연의 통찰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선험론적(transzendental)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KU, §77/KLL, 372, 375).

이 점은 “자연의 기술(Technik der Natur)” (EE, I)¹⁰이라는 용어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들고 나오는 목적론적인 근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치 객체의 개념이 자연 속에 (우리들의 내부에가 아니라) 있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여, 그 객체의 개념에 객체에 관한 인과성을 귀속시키거나, 또는 오히려 우리는 그와 같은 인과성(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서 발견한다)과의 유비에 따라 그 대상의 기능을 표상하고, 따라서 자연을 그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인하여 기술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KU, §61). 또 칸트는 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연산물들에 있어서 목적과 유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활동방식(인과성)을 기술이라고 부름으로써, 기술을 다시 의도적 기술과 무의도적인 기술로 구분하려고 한다” (KU, §72). 우리가 주관적 근거에서의 인과성을 마치 자연의 인과성인 양, 자연의 기술인 양 생각함으로써, 목적에 따른 자연의 결합관계 속에서 자연의 기능을 표상하고, 그 형식을 표상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기술은 자연을 이론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자연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요구된 것이다. 이때 기술은 이론에 대립된 것이기보다는 특별한 상황과 직면한 이론의 실행과 관련된 것이다.¹¹ 따라서 자연의 기술은 판단 자체에 있어서 발견적(heuristisch) 원리로서 우리의 인식능력들의 비판에 속한다 (KLL, 318). 자연의 준칙들, 일명 형이상학적인 지혜의 진술들은, 경험적인 표상들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전제하게 되는, 판단력의 선험론적인 표현들이 된다. 즉 자연은 다양한 형식들에서 비약하지 않는다. 혹은 자연은 항상 최단 거리를 따른다와 같은 이러한 준칙들 (EE, IV 참조)은 자연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동형성을 유지해 왔고 자연의 경험적인 법칙에 관해서도 판단력에 알맞은 절약을 유지해왔다는 선험론적인 표현들이다. 이러한 반성적 판단력의 격률은 형이상학적 일원론적 의미에서 세계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자연의 현상들의 풍부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 그러한 시선으로 생명현상들과 그것들의 조건의 특수성과 개별성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KLL, 377 참조).

‘자연의 기술’이라는 칸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의 인식이든, 자연에 대한 미감적

10. Immanuel Kant,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AA Bd. XX (Berlin: Walter de Gruyter 1942). 이하 EE로 약칭한다.

11. 자연의 기술이라는 사상은, 현상들의 순수한 기계적-인과적 연속에 대립하여, “객체의 속성에 대한 것도 대상을 산출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순히 예술과의 유비를 따라 그리고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인 관계 속에서 아니라 우리의 인식능력들에 대한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의 기술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자연 자체를 판정하는 것이다” (EE, I).

판단이든 간에 형식과 목적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형식적 합목적적 사상”이라는 용어에서만 보아도 충분하다. 즉 “하나의 객체에 관한 개념은, 그 개념이 동시에 이 객체의 현실성의 근거를 함유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일컬어지며, 또 하나의 사물이 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한 사물들의 성질과 합치하면, 그것은 그 사물의 형식의 합목적성이라고 일컬어진다” (KU, IV). 자연을 미감적인 형식으로 보든, 생명의 형식으로 보든 간에, 다양의 통일, 즉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형식적 합목적적 개념의 의미가 사유될 수 있다. “형식적 합목적적 개념에서 특수한 자연법칙의 총체적 개념은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특정한 규칙에 맞게 자기 자체로 특수화되는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KLL, 358). 미감적인 감정 속에서 발견되는 의식의 힘들의 총체성은 의식을 개별화된 능력들로 나누는 모든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마찬가지로 생명의 형식으로서 자연 전체도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 자체를 부분들의 근원이자 구체적인 규정의 근거로 바라본다. 자연을 생명의 형식들의 전체로 이해하는 곳에서, “모든 특수성은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존재의 표현들이고, 그러한 존재가 다양한 형성물들 속에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이해하는 것에는 “전체가 부분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전체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KLL, 359). 이때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하고 우연한 집합이 아니다. 오히려 현상들 전체를 자체 내에서 완결된 것으로, 체계적으로 분절된 통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특수한 자연현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에는 규정적 판단력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에 의한 것일지라도, 목적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형식적일지라도 합목적적 개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칸트는 자연의 생성과정에 대하여 직접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칸트가 처음의 성운에서 점차 항성, 행성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칸트-라플라스 가설의 창시자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생물학에서도 칸트는,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의 원형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형식들 간의 친근성을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전개의 근원적 모태로 까지 거슬러 갔다. 또 반대로 지구의 모태로부터 처음에는 덜 합목적적인 형식의 생물이 환경이나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합목적적인 형식으로 전개하고, 결국 풍부한 형성력의 활동이 중지하고 더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정했다 (KU, §80 참조). 결국 칸트는 유기적 존재들이 “자연의 전 기술(die ganze Technik der Natur)”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기계적인 법칙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원칙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기계적인 법칙과는 다른 원칙은 바로 발견적 원칙으로서 목적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칸트는 동식물의 세계를 목적에 따른 형식, 즉 목적형식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보

편적 모태라는 형식과 모든 생물들에게 합목적적으로 세워져 있는 유기적 조직을 사유했다.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양 개념 간의 이행만이 아니라 이론철학과 실천철학 간의 이행을 사유하게 하며, 칸트 철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자연도 역시 “그것의 형식의 법칙성이 적어도 자유법칙에 따라 자연 안에 실현되어야 할 목적의 가능성과 합치한다”(EE, II)는 칸트의 언급은 형식의 문제를 목적의 문제로 이행시키고 있다. 목적개념은 자연의 통찰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개념이 이론철학의 자연적 필연성과 실천철학의 자유 사이의 이행을 성취하는 주요수단이 되기 때문이다.¹² 자연법칙에 따른 사유방식이 자유에 따른 사유방식으로 이행함으로써, 자연의 형식의 법칙성이 자유의 법칙에 따른 목적의 가능성과 합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철학에서 도덕철학으로의 이행하는 것처럼, 즉 자연을 어떤 목적에 따른 체계로 이해하는 것과 유비적으로 인간의 삶과 문화 역시 어떤 목적에 따른 체계로의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결국 인간성과 자유의 문제가 부각된다. 칸트는 이점에서 문화철학의 단초를 열어주고 있다.

IV. 칸트의 영향에 따른 괴테의 목적개념과 형식개념

괴테는 자연연구에 있어서 칸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형태학(Morphologie)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일 정도로, 형식개념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GK, 70 참조).¹³

우선 괴테는 얼핏 보면 여러모로 칸트철학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자연연구에 있어서 칸트가 뉴턴을 추종하였던 데 반해, 괴테는 자연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뉴턴물리학에 계속적인 공격을 가한다. 또한 칸트는 수학이 자연론의 모든 부분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괴테는 이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거부했다. 괴테는 『순수이성비판』을 연구하였지만, 그 저작은 그에게 크게 감응을 주지 않았다. 논리학자로서, 순수이성의 비판자로서 칸트는 괴테의 시적 재능을 방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괴테가 『판단력비판』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가 느꼈던 기쁨과 쏟아낸 경탄의 말들은 칸트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이 책의 주요 사상들은 지금까지의 나의 창작 활동, 행동, 사고 등과 전적으로 유사한 것이었다. 예술과 자연이 지닌 특유의 현실인 이들 양자의 정신적 상호 작용이 책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12. Howard Caygill, *A Kant Dictionary* (Oxford: Blackwell 1995), p. 172.

13. Ernst Cassirer, “Goethe und Kantische Philosophie” (1944), in *Rousseau, Kant, Goethe*, hg. v. Rainer A. Bast (Hamburg: Meiner 1991), pp. 63-99. 이하 GK로 약칭한다.

있었다. 이 무한한 두 세계의 산물들은 그것들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또 이들 존재는 양립적, 호혜적이어야 하고 서로 때문에 고의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¹⁴고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저작을 통해 칸트의 자연이론이 자신의 자연연구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칸트의 저작을 알기도 전에 『식물변형론』을 썼지만, 그 저서는 완전히 칸트의 이론과 같은 정신에서 쓴 것이라고 언급했다.¹⁵ 그렇다면 괴테는 어떤 점에서 칸트와 유사하다고 느꼈던 것일까?

우선, 칸트는 자연에 대한 고찰에서 생명과정에 대해 순수한 기계적인 설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KU, §7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목적개념을 자연연구에 있어서 발견적 원리로 인지하고 있었다. 괴테는 당시의 생물학이 생명의 산물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생명의 과정에서 자연을 파악하고자 했다 (GK, 71). 그도 역시 생명의 과정은 자연의 기계적인 조직에 따른 묘사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했고, 자연관찰의 실마리로서 목적개념을 요청한다. 그도 이미 목적개념에서 원인개념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발견적 원칙으로만 설정하였다. 괴테 당대의 목적개념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사용과 이익에 맞춰져 있었고, 유용성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었다.¹⁶ 여기에 반감을 가졌던 괴테에게 칸트의 사상은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둘째로, 괴테와 칸트의 사고유형의 유사성이다. 형태학에 대한 괴테의 이념은 “유기적 자연의 형성과 변형”을 의미한다 (GK, 70). 괴테는 식물을 종과 속, 과와 강, 목으로 분류한 린네를 존경했지만, 린네의 이론은 생명의 산물만이 아니라 생명의 과정도 파악하고자 했던 괴테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사고유형이 요구되었다. 괴테는 당대의 철학과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엄격한 표상방식” 대신에,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이념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했다 (GK, 72). 그 점에서 『판단력비판』에서 칸트가 취한 사고방식은 괴테에게 매력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칸트 역시 자연의 존재를 서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생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를 원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는 생물학에서 목적형식과 근

14. Johann Wolfgang von Goethe, “Einwirkung der neueren Philosophie”, in *Zur Naturwissenschaft im Allgemeinen,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I*, Hamburger Ausgabe, Bd. 13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82), p. 2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색채론/자연과학론』, 장희창, 권오상 옮김 (민음사 2003), pp. 335-336.

15. 요한 피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박영구 옮김 (푸른 숲 2000), p. 276 (1827년 4월 11일).

16. 브로케스(Barthold Hinrich Brookes, 1680-1747)는 저서 『신 안에서 지상의 즐거움 Irdische's Vergnügen in Gott』에서 모든 것은 인간의 목적, 즉 인간의 사용과 이익에 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도 『신, 세계, 인간의 영혼, 모든 사물 일반에 대한 이성적 사색』에서 세계 내 모든 것의 존재의 의미를 그 유용함에 두고 있다. 즉 북극성은 여행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의 『칸디드 Candide』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은 신이 우리에게 코를 준 이유는 우리가 안경을 코에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 같이 목적을 사물 자체의 목적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사용에 유용한 외적 목적을 보여준 사례이다 (GK, 67-69).

원적인 모태를 상징하는 가운데 유기체들의 통일적인 유래와 발생의 흐름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칸트는 이러한 가설을 “이성의 모험” (KU, §80)이라고 불렀다. 그는 “여기를 넘지 말 것이다”라고 쓰인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했다.¹⁷ 그럼에도 이성의 모험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성이 여전히 한계 너머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성의 모험을 통해서 그가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 열망이 근원적 모태를 해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체계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테도 이러한 이성의 모험을 과감히 시도했다. 근원현상(Urphänomen), 근원식물(Ur-pflanze)과 변형(Metamorphose)에 관한 괴테의 사상은 이러한 대담한 이성의 모험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근원현상은 “현상들을 통해서 직관에 드러난 것”¹⁸이며, 근원식물은 근원현상의 일종으로, 식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형의 법칙 역시 “모든 식물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가운데 발견해낸 것”¹⁹이다. 변형은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을 지배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풍부하고 생산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²⁰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 중 팔레르모 식물원에서 근원식물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는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로 생각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이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괴테에게 근원식물은 “식물들을 무한하게 창안해낼 수 있는 일종의 열쇠”²¹로, 식물의 전체형식을 가능케 하는 근거이다. 그것은 “원형적인 것이자 전형적인 것”²²이고, 칸트 식으로 보면, 경험에 체계적 통일을 부여하는 규제적 원리이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괴테 역시 이성의 모험을 감행하여 근원식물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상징으로 칭하고 그 탐구에 있어서 사고의 한계만이 아니라 시각의 한계를 초월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칸트가 이념들에 대해 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것처럼, 괴테도 근원식물, 근원현상, 변형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17.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g. v. Rai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1956), A 395.

18. 괴테, 『색채론/자연과학론』, p. 95.

19.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p. 262 (1827년 2월 1일).

20. Johann Wolfgang von Goethe, “Wirkung dieser Schrift und weitere Entfaltung der darin vorgetragenen Idee”, in *Werke*, 2. Abt., Bd. VI, p. 276; Ernst Cassirer, “Goethe Idee der Bildung und Erziehung” (1932),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32–1935),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8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4), p. 133.

21. Ernst Cassirer, “Goethe und die mathematische Physik. Eine erkenntnistheoretische Betrachtung”, in *Idee und Gestalt. Goethe, Schiller, Hölderlin, Kleis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p. 4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탈리아 여행 2』, 박영구 옮김 (생각의 나무 2005), pp. 59–60 (1787년 5월 17일 나폴리) 참조.

22. Johann Wolfgang von Goethe, “Anschauende Urteilskraft”, in *Zur Naturwissenschaft im Allgemeinen,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I*, p. 31.

생명의 무한한 풍부한 상들에 기뻐하면서도 생명을 상징이나 기호로 표현하고 그 비밀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GK, 79).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괴테에게 중요한 것이 형식이었다는 점이다. 형식의 강조는 시인이자 예술가로서의 괴테의 특징을 부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괴테는 자연의 연구자일 때조차도 직관적인 사상가로 남았고, 모든 무형상적인 것에 혐오를 느꼈다.²³ 그가 수학의 고유한 정신적 힘에 대해서는 존중했지만, 수학을 멀리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수학을 토대로 하는 정밀 과학이 수를 통해 풍부하고 활기찬 세계를 생명이 없는 무형상의 추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괴테의 사유방식과 정밀과학의 사유방식의 차이이기도 하다. 특히 괴테에게는 눈을 통한 직관이 중요했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단순히 감각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이념적인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포함한다. 괴테에게서 직관과 이론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를 하나하나의 주의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이론화한다.”²⁴ 이러한 이론화 과정에서 자연의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의 의미, 하나의 형식, 하나의 전체상을 직관한다는 것이다.

괴테는 이처럼 오직 직관적인 형태들에서만 사유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자연연구에서 분석적 오성의 필연성만큼이나 통일하는 능력으로서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는 시 창작 못지않게 자연연구에서도 생산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실재하는 것의 진리를 위한 상상력”이라고 언급했다.²⁵ 그가 오성과 상상력의 조화 속에서 찾아낸 것이 창조적 자연의 생산적 원칙들이다. 그것은 바로 매우 유사한 살아 있는 존재들은 동일한 형성원칙들에 의해 산출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괴테는 자연연구에서 비롯된 형식에 대한 생각을 예술작품의 창안에도 반영한다. 그는 『판단력비판』에서 예술의 산물과 자연의 산물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미학적 판단력과 목적론적 판단력이 서로 교차되면서 밝혀지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현했다.²⁶ 괴테는 본래부터 직관과 이론도, 자연의 법칙이나 미의 법칙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진리는 현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연의 법칙들은 그 현상 없이는 영원히 숨겨질 비밀스런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자연의 법칙들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정

23. Cassirer, “Goethe und die mathematische Physik”, p. 56.

24. 괴테, 『색채론/자연과학론』, p. 32.

25.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p. 202 (1825년 12월 25일).

26. Goethe, “Einwirkung der neueren Philosophie”, p. 27.

의했다.²⁷ 그런 점에서 그는 자연현상들 속에서 순수한 형식을 찾아갔고,²⁸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완성시켜 나갔다.

V. 카시러의 문화철학에서 목적개념과 형식개념

칸트와 괴테가 자연연구에서 보여준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에 대한 이해는 카시러의 문화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카시러가 문화를 자연 못지않게 생동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체계적인 통일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문화철학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문화형식이다. 무엇보다도 전체와 부분의 생동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부분이 그 개별적인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화형식을 파악함에 있어서 무형상의 추상이 아니라 상이나 상징과 같은 직관적인 형식을 중요시한다. 문화철학이 달리 말하면 상징형식의 철학인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카시러는 언어, 신화, 예술, 종교 등이 인간 정신을 표현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매개적 형식이자 정신의 객관화된 형식이라고 보고, 상징형식이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자연과학이나 논리학, 윤리학과 같은 기존의 학문으로 인정된 객관적인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단초는, 이미 앞서서도 논했듯이, 자연과 예술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각각의 형식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서로의 조화와 통일을 주장했던 칸트와 괴테에게서 발견된다. 괴테는 이 때문에 “세계에 대한 우리의 노 칸트의 무한한 봉사”²⁹라고 칸트에게 경의를 표했다.

카시러에게 상징 못지않게 형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문화의 형식개념 속에서 고려하는 것은 고대철학자들의 ‘원인’이나 ‘목적’보다는 19세기 이후 물리학의 ‘장’이나 생물학의 ‘전체’, ‘구조’이다 (LK, 450-455 참조). 그는 각각의 상징형식들도 자기 고유의 일정한 정신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BsF, 96).³⁰ 이러한 이해는 상징형식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목적으로 이해될 때만이 가능하다. 그는 모든 상징형식 속에는 정신의 근본현상(Grundphänomen)이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근본현상은 우리의 의식이 외부세계에 대한 인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산출한다.

27. Johann Wolfgang von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Goethe Werke, Bd. 12 (München: C. H. Beck Verlag 2005), p. 467, Nr. 719.

28. Johann Wolfgang von Goethe, “Bedeutende Fördernis durch ein einzuges geistreiches Wort”, in *Zur Naturwissenschaft im Allgemeinen,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I*, p. 38.

29. 괴테가 1830년 1월 29일자 젤터(Carl Friedrich Zelter, 1758-1832)에게 보낸 편지 (GK, p. 70 재인용).

30. Ernst Cassirer, “Der Begriff der symbolischen Form in Aufbau der Geisteswissenschaften” (1923),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pp. 75-104. 이하 BsF로 약칭한다.

이렇게 산출된 자기창조적인 기호와 상은 독자적인 풍요로움과 근원적인 힘 속에서 사물의 객관적인 실재에 마주하여 자신을 주장한다 (BsF, 79). 이처럼 카시러는 감각적인 기호나 상을 단순히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것과 결합된 자기창조적인 것, 자유로운 형성력의 산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정신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근본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이나 상징, 기호의 보편성을 부각한다는 점이다. 그는 상징개념의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를 논하고자, 상징형식의 정신적 에네르기에, 정신의 활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BsF, 79). 그는 상징형식에서 일어나는 생산적인 정신활동을 “보편적인 것이 특수한 것과 동시에 정신적인 중심에서 만나고 특수한 것과 더불어 진실하고 구체적인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것” (BsF, 81)이라고 구조화하고, 정신적 산출의 힘을 “단순한 감각내용과 인지 내용을 상징적 내용으로 형성하는 힘” (BsF, 81)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각각의 형식들은 감각적 상에 대항하지 않고 그 자체 속에서 살고 산출한다. 이때 형식은 단순한 감각적 형태가 아니라 이념이자 정신으로, 감각적 상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카시러가 문화연구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형식들의 총체성” (LK, 434)이자 “상징형식의 일반적 체계성” (BsF, 78)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각각의 상징형식의 고유성만이 아니라 상징형식들 전체의 통일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상징형식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결코 개별 상징형식을 모두 일정한 정신적 구조와 특정한 표현 수단으로 서술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이 형식들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BsF, 96). 카시러는 이러한 형식들의 상호관계를 하나의 “전체상(Totalbild, Gesamtbild)” (LK, 415, 441)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관을 전체로서 성립시키는 근원적 형성작용이 요구된다. 정신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념화에 의거하여 보는 것이다. 카시러는 이것을 “상징적인 이념화작용(symbolische Ide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PsFIII, 155).³¹ 카시러는 “형식이 부여된 전체적 직관” (PsFIII, 144)을 중요시하였고, “전체로서 직관을 관련시키고, 직관을 전체로서 비로소 성립시키는 근원적 형성작용” (PsFIII, 155)을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근원적 형성작용을 설명하고 정신의 창조성을 강조하기 위해 “생산적 상상력”을 강조하였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PsFIII, 155).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괴테의 이념적 사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칸트가 이성의 모험이라고 불렀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끈다.

31.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이하 PsF III로 약칭한다.

또한 전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상징적 함축(symbolische Prägranz)”³²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전체와 부분의 생동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카시러 철학의 중요개념이자, 크로이스가 카시러 철학의 “선험적 요소”이라고 불렀던 것이다.³³ 무엇보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전체를 통일된 것으로 직관하면서도 현상의 풍요로움을 구제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즉 “현상을 획득하는 상징적 함축은 이러한 풍요로움을 박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상징적 함축은 이러한 풍요로움이 단순히 흘러가 버리지 않고 확고하고 자기완결적인 하나의 형식으로 성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PsFIII, 237).

카시러가 하나의 전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한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상은 일종의 이념적 추상으로, 그 시대의 인간들이 상이하고 대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의 일정한 이념적 연관 속에 있다” (LK, 430). 그리하여 이러한 인간상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인간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숲을 보듯 이념적으로 직관하는 데서 나타난다. 한 시대의 인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바로 천재적인 예술가가 작품 속에 구현해낸 인간상이다. 진정으로 산출적인 정신인 예술가가 자신의 정신을 통해 파악한 인간상은 동시에 그 시대의 전체상이라는 형식을 띠고 나타난다. 그는 결코 확실치 않은 어떤 목적을 향해, 그 목적을 산출하려는 의지로, 순수형식들을 상으로, 상징으로, 현상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이 다음 세대의 정신에 불을 붙여, 새로운 형식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문화를 계승하게 하고 전진하게 한다 (LK, 469-470). 칸트가 미적 예술에 요구했던 천재와 취미, 상상력과 판단력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문화의 전진과 계승을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취미를 통해 천재에게 부여했던 미적 형식의 구현에 있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KU, §48, §50 참조), 예술가에 의해 형성된 인간상 혹은 세계상과 같은 전체상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카시러는 형식개념을 구조나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목적개념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까? 앞서 보았듯이 칸트와 괴테는 목적개념을 자연연구에 있어서 발견적 원칙으로 사용하였다. 카시러도 그와 같은가? 그것은 분명치 않다. 다만 카시러는 분명 상징형식 각각에서 자기목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산물로서가 아니라 생동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해되는 문화의 경우에, 그 형식은 고유의 형식만이 아니라 변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형식과 변형은 목적과 관련시키지 않고는 생

32. “상징적 함축은 어떤 지각적 체험이 감각적 체험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비-직관적 의미(Sinn)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이러한 의미를 직접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PsF III, 235).

33. John Michael Krois, *Cassirer: Symbolic Form and History*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7), p. 56.

각될 수 없기에, 문화현상들에서도 전체와 부분 간의 인과관계 속에 목적개념을 끌어들이고 상호작용을 사유한다. 칸트와 괴테가 미학적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연을 바라본 것처럼, 카시러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형식들을 바라본다. 카시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화형식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연구하면서, 그 형식들을 매개로 하여 우리 내부의 주관적인 근거의 유비에 따라 문화의 전체형식을 사유하고,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사유한다. 하나의 공통된 목적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칸트의 관점이 녹아들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관점은 카시러가 칸트의 이념을 해석하는 관점인 것이다. 카시러는 칸트의 초감성적 기체를 하나의 이념으로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목표를 투영한 것” (KLL, 371), 혹은 “무한한 과제에의 이념”³⁴으로 해석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석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이념을 실체로서가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카시러의 문화연구에서 목적개념도 일종의 그와 같은 무한히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자 규제적인 원리로서 문화가 지향하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 역시 목적개념을 문화연구에서 새로운 형식을 발견하는 발견적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개념과 관련하여 ‘전개’에 대한 카시러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전개는 “존재의 초월적인 근원으로 밀고 들어가서 삶의 비밀을 밝혀줄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도 아니다. [...]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비로소 완전한 충만함과 생의 현상들의 관계를 완전하게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이다” (KLL, 383). 그런 점에서 전개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명제를 고수한다면 유기체 영역에서 전개로 인한 새로운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개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은 생물학의 돌연변이설이나 물리학의 양자이론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 학문들이 벌어진 틈이나 비약을 통해서만 새로운 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LK, 460). 카시러는 생의 완전한 충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전개의 원리를 자연에서 문화로의 돌연한 이행에도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현상은 자연현상보다 더 강하게 생성의 영역에 묶여 있다 (LK, 455). 그리하여 문화연구의 경우에서 언어의 역사, 예술의 역사, 종교의 역사처럼 문화의 생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화현상을 다 고찰했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문화의 새로운 형식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에서도 유기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개를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진정한 전개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다른 종으로의 전

34. Ernst Cassirer, “Naturalistische und humanistische Begründung der Kultur philosophie” (1939),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36–1940),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22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p. 166.

이(metabasis eis allo genos)'이거니와,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인과적 설명을 줄 수 없고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이다”(LK, 461). 즉 언어의 경우, 공포로 내지른 소리가 낱말로 변화하고, 그러한 낱말이 대상을 지시할 수 있게 될 때, 그러한 이행을 전개라고 표현할 경우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이행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문화 안에서 돌연한 형식의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적개념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카시리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적 지식과 철학이란 것도 인간 자체를 현상에서 드러내 보일 뿐이고, 인간을 문화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인간 본질의 지식을 얻을 수도 없다. 바로 여기에 발견적 원리로서 목적개념의 기능이 있다.

다른 한편, 문화철학이 인간학이라는 점에서, 궁극목적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사명을 고려한다면, 문화는 자연고찰과는 달리 도덕적 존재로서 자율적인 인간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그의 사명으로 보아 자연의 최종목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즉 인간이 자연과 자기 자신 사이에 하나의 목적관계를 부여할 줄도 알고 또 그럴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조건하에서만 그러하다”(KU, §83). 이 문장은 인간이 목적관계를 스스로 부여할 줄 아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이유에서 칸트에게서 “문화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성취요, 진정한 자율의 성취이다”(LK, 463). 그런 점에서 카시리는 문화가 부여한 새로운 목표로서 도덕적 자아의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카시리 역시 문화가 인간의 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의 창조자이자 담지자로서 인간에게,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 지향하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둔다면, 문화의 근거는 스스로 목적을 부여하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동시에 문화의 결과로서 자율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카시리가 문화형식의 토대로 주장했던 진정으로 산출적인 정신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자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문화형식들에서 나타나는 형식형성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 이러한 자율을 근거로 문화형식들이 진정으로 산출적인 정신들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LK, 485). 더구나 문화형식은 자아가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LK, 466). 그 점에서 자율의 성취는 도덕적 자아로 나아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러므로 카시리의 문화철학에서 문화의 목적으로서 자율의 성취는 문화의 시작이자 무한한 과제로서 기능한다.

VI. 결론

카시리에게 칸트와 괴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카시리는 칸트만이 아니라

괴테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했고 그의 문화철학, 즉 상징형식의 철학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 특히 형식개념과 목적개념에 대한 카시러의 해석은 칸트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괴테의 실현에서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카시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실체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우선 칸트는 자연인식에서 기계적 인과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인식에 있어서 목적론적 해석을 없애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목적개념도 절대적인 원인과 같은 어떤 실체로서 파악하기보다, 어떤 자연현상을 기계적 설명만으로는 불가능할 때, 확실한 이성 사용을 위해, 자연을 체계적인 통일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자연에 대한 미학적 판단이나 유기적 자연에 대한 판단에 대한 칸트의 고찰에 있어서도, 형식과 목적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칸트는 미학적 판단력비판과 목적론적 판단력비판을 서로 호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형식개념과 목적개념 역시 교호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칸트는 유기적 자연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풍요로운 형성력으로 인해서 가장 합목적적인 형식에, 즉 목적형식에 도달할 것으로 보일 때, 그러한 형식들의 공통된 근원으로서 근원형식과 그것으로부터 전개를 사유한다. 칸트 스스로 이성의 대담한 모험이라고 언급했던 그러한 사유방식은 괴테에게 영향을 미친다. 누구보다도 자연연구에 있어서 무형상의 추상을 혐오한 괴테는 근원식물, 근원현상, 변형론으로 구체화한다. 이 이론들은 형식에 중점을 두고 전체를 직관하는 이념적 사유방식에 입각하여 구성된 것이다.

카시러는 칸트와 괴테가 자연연구에서 보여줬던 개념들을 문화연구로 가져 온다. 그는 문화철학을 연구할 때, 무엇보다도 문화형식에 주목했고, 그것들을 일정한 정신적 구조로, 체계적인 통일로 이해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칸트와 그에게서 이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괴테로 인해, 카시러는 전체를 직관하는 이념적 사유방식을 상징적 이념화작용으로 취하고, 그의 고유의 개념인 상징형식을 일정한 정신적 구조라고 주장하고, 전체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할 수 있었다.

카시러는 문화연구에서 그 근본현상을 탐구하고 거기에서 문화형식들의 전개를 살핀다. 카시러는 그러한 문화형식의 전개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목적은 하나의 이념으로서 칸트와 마찬가지로 문화형식들을 체계적 통일로 이해하고 새로운 형식을 포착하기 위한 발견적 원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칸트가 문화의 목적을 자유의 성취, 자아의 성취라고 주장하고, 도덕적 자아의 성취를 목표로 했다면, 카시러는 문화형식들을 진정으로 산출하는 정신의 토대로서,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이념의 토대로서 이러한 자유의 성취를 이해

한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도덕적 자아를 성취하는 토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카시러는 칸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자유의 성취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무한한 과제로, 풍부하고 창조적인 문화형식들을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한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파악함과 동시에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인 것이다.

논문투고일: 2023년 12월 15일

심사기간: 2023년 12월 16일-2024년 1월 12일

최종게재확정일: 2024년 1월 13일

참고문헌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색채론/자연과학론』, 장희창, 권오상 옮김, 민음사 2003.
- _____, 『이탈리아 여행 2』, 박영구 옮김, 생각의 나무 2005.
-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와의 대화』, 박영구 옮김, 푸른 숲 2000.
- Aristoteles, *Physics*, trans. Robin Waterfie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Cassirer, Ernst, “Der Begriff der symbolischen Form in Aufbau der Geisteswissenschaften” (1923),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6,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3, pp. 75-104.
- _____, “Eidos und Eidolon. Das Problem des Schönen und der Kunst in Platons Dialogen” (1924),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2-1926),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6,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3, pp. 135-163.
- _____, “Form und Technik” (1930),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27-1932),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7,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4, pp. 139-183.
- _____, “Goethe Idee der Bildung und Erziehung” (1932),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32-1935),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8,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4, pp. 127-147.
- _____, “Goethe und die mathematische Physik. Eine erkenntnistheoretische Betrachtung” (1921), in *Idee und Gestalt. Goethe, Schiller, Hölderlin, Kleis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4, pp. 33-80.
- _____, “Goethe und Kantische Philosophie” (1944), in *Rousseau, Kant, Goethe*, hg. v. Rainer A. Bast, Hamburg: Meiner 1991, pp. 63-99.
- _____, *Kants Leben und Lehre*, Berlin: B. Cassirer 1921.
- _____, “Naturalistische und humanistische Begründung der Kultur philosophie” (1939), in *Aufsätze und kleine Schriften* (1936-1940),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22,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pp. 140-166.
- _____,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dritter Teil: Die Phänomenologie der Erkenntnis* (1929),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상징형식의 철학 III』,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19.
- _____,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Fünf Studien* (1942), Gesammelte Werke Hamburger Ausgabe, Bd. 24, hg. v. Birgit Recki,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7; 『문화과학의 논리』, 박완규 옮김, 길 2007.

Caygill, Howard, *A Kant Dictionary*, Oxford: Blackwell 1995.

Goethe, Johann Wolfgang von, *Maximen und Reflexionen*,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Bd. 12, München: Verlag C. H. Beck 2005.

_____,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1775-1786)*, Goethes Sämtliche Werke, Bd. 29, hg. v. Hartmut Reinhardt, Frankfurt a. M.: Deutscher Klassiker Verlag 1997.

_____, *Zur Naturwissenschaft im Allgemeinen, Naturwissenschaftliche Schriften*, Goethes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 13,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82.

Kant, Immanuel, *Erste Einleitung in die Kritik der Urteilskraft*,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AA Bd. XX, Berlin: Walter de Gruyter 1942.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hg. v. Raymund Schmidt, Hamburg: Felix Meiner 1956.

_____, *Kritik der Urteilskraft*, hg. v. Karl Vorländer,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74.

Krois, John Michael, *Cassirer: Symbolic Form and History (1983)*,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1987.

Plotinus, *The Enneads*, trans. Stephen Mackenna, New York: Pantheon Books 1969.